

지역 소식통

부안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부안군은 본격적인 입산철 생 산철을 맞아 입산물 채취로 인 한 산림피해 및 산발발생 우려 가 증가하는 오는 5월 31일까 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 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으로 구성 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산 약초, 희귀식물 등 입산물 불법 굴취·채취, 산림 내 취사, 수 목훼손, 쓰레기·오물 투기 등 의 행위를 집중단속 하여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산발예방에 힘을 기울인다.

입산물 불법 채취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 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으로 채취한 입 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청년 초기 창업가 세무서비스 이용 수수료 지원

정읍시가 지역 내 청년 창업 가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영업 고정비용 경감 을 돕기 위해 세무사 이용 수 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15일부터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12월 24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된다.

신청 기준은 신청일 기준 주 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이며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연 매출 1억원 이하이면서, 18세~45세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하면 된다.

선정될 경우 세무사 이용 수 수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세무서비스 보 탬이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가 들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 워져 초기 경영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청보리밭축제 '팡파르'

20일 개막, 5월12일까지 '초록물결 음악노트' 주제 ... 공음면 학원관광농원서

고창청보리밭축제장은 지금 청보리 가 겨우내 얼어있던 대지를 녹이고 초 록빛 얼굴을 내밀고 있다. 30만평의 광활한 대지에 초록빛으로 물들인 청 보리가 관광객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 축제인 '고 창 청보리밭축제'가 오는 20일부터 5 월12일까지 23일간 '초록물결 음악노 트'를 주제로 고창 공음면 학원관광농 원 열린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고창 청보리 밭축제'는 전국 최초 '보리'를 주제로 한 경관농업 대표 축제다.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청보리밭축제위원회가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농협고창군 지부,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가 후 원한다.

올해는 드넓은 청보리밭을 무대로 한 다양한 음악공연이 선보여진다. 개



막시 공연을 비롯해 보리밭 사잇길 버 스킹, 관광객 참여 공연 등 다채로운

음악관련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또한 먹거리 안전도 빼놓을 수 없다. 군은 축제장 내 음식점 위생점검을 더 욱 철저히 하고 바가지 요금없는 축제 운영을 위해 종합상황실 내 신고센 터, 식서류 및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축제기간 중 내부주차장 이용 을 유료화 하고 상품권으로 전액 환원 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축제 로, 볼거리와 먹거리 등에서 아주 특 별한 추억을 선사해줄 것"이라며 "축 제장은 물론 다수가 모여드는 장소도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해 군민과 관광객이 맘껏 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낙농 도우미 지원

낙농가 노동환경 개선 나서... 자부담 50% 도우미 요원 지원

정읍시가 낙농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7,620만원의 예산을 투입 해 '낙농 도우미(일명 헬퍼) 지원사 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낙농 도우미 지원사업'은 하루 2회 이상 착유해야 하는 젖소의 특성 때문 에 연중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낙농가 에 명절, 경조사 기간 등 도움이 필요 한 때 대체 인력을 제공해 주는 사업 이다.

낙농 도우미 요원은 낙농 전문교육 을 이수했거나 낙농업 종사경력이 있 는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돼 착유, 사료 급여, 우사 청소, 분만·치 료 보조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이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시 낙우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낙농 도우미가 필요할 때 단체에 신청하면 자부담 50%로 도우미 요원을 지원받 을 수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 사 업은 올해 85농가에 2인 1조 2개팀이 지원하고 있어 노동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중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낙농가의 사육 의지를 고취하고, 노동환경 개선 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낙농업 발 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 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 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공개모집

부안군, 오는 30일까지

부안군은 터미널 인근 상권 활성화 를 위한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 협력상가(부안을 봉덕리 574-13) 입주 자를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공개 입찰을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현장 설명회는 24일 오후 2시에 개최하며, 5월 1일 오전 10 시에 개찰해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을 진행한다.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 목적으로 조성된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입찰을 통해 모집하는 상가는

상설시장 방면 8개의 상가이며, 나머 지 3개의 상가는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개입찰은 행정안전부 지정정보처 리장치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www.onbid.com)를 통해 진행되며, 사 용료는 최고가 낙찰을 통해 산정된다.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의 연간 기준 임대료는 최고가 낙찰제 이기 때문에 점포에 따라 임대료는 달 라지고 2년차부터는 최초 임대료에 공 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한다.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1 회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일반사무실은 입찰이 제한되며 부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은 둔 18세 이상 개인 및 법 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상생협력상가 입 주자 모집을 통해 터미널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고 생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 대한다"고 말했다.

상생협력상가 점포 입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15일부터 온비드와 부 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입찰공 고를 참조하거나 부안군 새만금도시 과 도시재생팀(063-580-4870)으로 문 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이 지난 12일 공음면 선산마을을 위령탑 광장에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 된 1700여명의 양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제74주기 위령제를 봉행했다.

고창, 제74주기 6.25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 봉행

고창군이 지난 12일 공음면 선산마 을 위령탑 광장에서 한국전쟁 당시 무 고하게 희생된 1700여명의 양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제74주기 위령제를 봉행했다.

위령제는 6.25양민희생자 제전위원회 (위원장 양완수) 주관으로 마련되었으 며,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 의회 운영위원장,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분향, 추념사, 추도사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공음면 선동리에 건립된 6.25양민희 생자 위령탑은 고창군 7개 지역에서 1700여명이 무참하게 학살된 사건들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고인

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2007년 4월5 일 건립됐다.

양완수 6.25양민희생자 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위령제를 통해 무고하 게 죽음을 맞은 고인들의 명예를 조금 이나마 회복시키고, 그동안 가족을 잃 은 아픔과 동시에 주위의 따가운 시선 을 견디며 살아온 유족들의 한을 해원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위령제를 통해 유족 여러분의 오랜 상처가 조금이라 도 치유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고 창군은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유족회 활동에도 적극 협조하 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주민 참여형 워크숍 '마을 발전 비전 수립' 마무리

정읍시는 시민청안대회 뿌리단계 선 정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1 일부터 4월 4일까지 '마을 비전 수립'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마을 비전 수립 사업은 체계적인 마 을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마을의 특성 과 지원을 파악하고, 마을의 현안 문 제와 해결 방안을 찾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주민 참여형 워크숍이다. 이 번 사업에는 주민 150여명이 참여했 다.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진 행된 워크숍은 3시간씩 총 2회에 걸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며 마 을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 하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과정 에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협력하

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마을이 보 유하고 있는 유·무형 자원을 찾고, 실현 가능한 사업이 발굴되도록 주민 들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도 향상 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마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 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